

경진기 협동발전 10년 고품질 발전의 새 장 펼쳐



2023년 7월 17일 찍은 북경—당산 도시간 철도(연교구간) 및 개조후의 통주—연교 고속도로 연교출구 립체교 중추. / 신화사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은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 포치하고 추진한 중대한 국가전략이다. 올해는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전략 실시 10돐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래 중점 공략으로부터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북경, 천진, 하북은 손잡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행구, 시범구를 힘써 건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시대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웡안신구 동서 중축선 대상 건설 현장은 로동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1분기, 웡안신구 56개 대상이 착공 건설되었으며 기능 해소 부대시설, 혁신 플랫폼, 공공봉사기능 등 여러 면을 포괄했다. 웡안신구 개혁발전국 왕인위 국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능 해소 부대시설 대상의 투자는 123.8억원에 달하고 투자비율은 30%가 넘는다. 올해 웡안신구 년간 투자는 여전히 2,000억 원을 유지할 것이며 북경 비수도기능 해소를 위해 계속 기반을 다지고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북경 비수도기능 해소는 북경—천

진—하북 협동발전의 핵심이다. 10년 동안 북경에서는 일반제조업체와 OEM업체 약 3,200개를 해소하고 지역성 전문시장과 물류중심 근 1,000개를 해소하거나 승격시켰다. 이와 동시에 북경시의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신설 경영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7%에서 66.1%로 늘었다. 북경의 '대도시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경에서 벗어나 북경을 바라보아야 하고 더 큰 공간구도에서 포석해야 한다. 2023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 심층추진 좌담회 주제 시 북경의 도시부중심 건설은 웡안신구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양날개'가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해 북경의 '대도시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에 제2진 북경 시급 부문이 이주를 완수함으로써 현재 이미 근 3만 명 시급 기관 직원들이 부중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기업은 이미 웡안신구에 지사와 각종 분기구 200여

개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북경시와의 정부데이터 접목과 공유를 실현했고 200여개 사항들이 '다성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북경은 복사와 인출 역할을 발휘하면서 북경 도시부중심과 웡안신구 '양날개'의 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혁신과 산업협력은 북경—천진—하북 지역의 역대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천진시 무청구 북경—천진 산업신도시에서 궤도교통 분야의 설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의 작업장에서는 매일 300세트의 제품집게가 생산된다. 해당 제품은 부후호 고속열차가 시속 350킬로미터 조건에서도 부드럽고 신속한 제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철도건축연구소의 리위 부소장은 "천진에 이동설비, 통신신호,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많은 산업기지와 검사검증업종의 봉사기지들을 투자. 건설함으로써 혁신기술, 산업사슬 현지화를 실현하고 일체화, 종합성 궤도교통 과학기술단지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북경에서 연구 개발하고 하북성과

천진에서 고차 전환되면서 날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발전공간을 확장하게 되었다. 10년이래 북경에서 천진과 하북으로 이전된 기술계약 거래액은 루계로 2,800억원이 넘으며 중관춘 업체들도 천진과 하북 두곳에 루계로 지사와 분기구 1만개 이상을 설립했다. 협동발전에서 교통이 우선이다. 10년이래 '궤도상의 북경—천진—하북'이 신속히 형성되고 주요 도시 사이 1시간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도시화 효과도 뚜렷해졌다. 북경—천진—하북 합동판공실 종합조의 서릉위 조장은 3개 지역은 교통기반시설의 하드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프트 연결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다지역 도로의 통행 능력을 크게 제고했다고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천진—하북 협동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이래 북경, 천진의 200여개 소학교와 유치원 및 하북의 200여개 학교가 다 지역 협력 운영을 실현했고 루계로 15개 다지역 직업교육련맹, 22개 대학교합발전련맹을 설립했다. 2023년, 북경—천진—하북에서는 타지 진료 등 록을 취소하여 1억 1,500만명의 북경—천진—하북 시민들이 사회보장카드를 북경, 천진, 하북에서 빠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풍경을 관광하며 박물관을 참관할 수 있는 동시에 병치로 결재를 가능하게 했다. 북경, 천진, 하북 3곳은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진했다.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 양수령 주임은 "우리는 천진, 하북과 손잡고 현대화한 수도 도시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급 도시군을 건설하며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이 지속적으로 새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선행구, 시범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중앙인민방송

중국, 우크라이나위기의 정치적 해결 추동 위해 계속 독특한 역할 발휘할 것

외교부 대변인 모닝은 2월 28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계속 발휘하여 우크라이나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할 것이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닝은 중국정부 유라시아사무 특별대표 리휘가 3월 2일부터 로씨야, 유럽동맹 분부, 뿔스까, 우크라이나,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2차 중재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닝은 기자의 관련 문제에 대답할 때 "하루라도 빨리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고 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평화회담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중국은 로씨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깊은 소통을 하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문 발표하고 특사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모닝은 "중국은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전쟁에 불을 붙이지 않았으며 더우기는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보지 않았다.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평화담판에 길을 닦아주는 이 한가지 목표를 향해 나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여 중재외교를 벌일 것이며 관련국의 공감대를 모아 우크라이나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신화넷

중국, 항공기내 인터넷 접속 가능



2월 26일,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는 북경에서 발표회를 열고 2024년 우주비행임무의 전반 상황을 소개했다. 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 위성인터넷 운영 회사인 중국위통(中国卫通)은 시장에 소비급(消费级) 위성인터넷제품을 더 많이 제공하고 항공회사와 연합하여 항공위성인터넷제품 데이터세트(流量套餐)를 출시하게 된다. 중국위통 시장부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비행기를 타는 고객들은 미리 인터넷항공편을 조회하고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위성인터넷 데이터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하늘 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나 기타 단말기로 와이파이(wi-fi)를 연결해 동영상과 인터넷을 볼

수 있으며 생방송 스포츠 경기도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는 4G 수준이다. 현재 위성통신 응용은 경제사회와 민생의 각 분야와 전 과정에 더 가깝게 융합되고 있으며 위성인터넷은 통신네트워크 기초시설의 중점 분야 중의 하나로 디지털경제의 초석으로 되고 있다. 항천우주과학기술그룹 산하의 중국위통은 우리나라 고궤도 위성인터넷 등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건설자와 운영자이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위성통신 운영기업이자 국가 기간 통신 운영회사이며 우리나라 위성통신 산업사슬의 사슬장(链长) 단위이기도 하다. / 신화넷

일본, '결혼 빙하기'에 들어서

2월 16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결혼자 수가 계속 감소되어 2023년에는 50만쌍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는 기회가 줄어든 데다 경제적 요인까지 겹쳐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16일 내각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보완한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를 인상으로 소득한 약 1조 5,000억 엔(약 100억달러)을 3~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에 사용하고 2020년부터 대학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출생자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이미 80만명 아래로 떨어져 관련 통계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실한 대책의 효과가 좋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미혼 청년들을 고려

하지 않고 '육아 지원'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15~19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적을 전망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는 기회가 줄어든 데다 경제적 요인까지 겹쳐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16일 내각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보완한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를 인상으로 소득한 약 1조 5,000억 엔(약 100억달러)을 3~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에 사용하고 2020년부터 대학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출생자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이미 80만명 아래로 떨어져 관련 통계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실한 대책의 효과가 좋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미혼 청년들을 고려

/ 신화넷

외자기업이 '중국 투자'를 늘이는 이유

독일 폭스바겐그룹(중국) 회장 겸 최고경영자 베레트는 최근 중국중앙방송중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하는" 전략을 통해 중국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더 빨리 개발·제조하고자 중국 산업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폭스바겐의 최대 해외 연구 개발센터가 중국에서 오픈했다. 약 10억유로를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의 제품 개발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도 최적화했다. 외자는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일전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자 안정을 올해 경제업무의 중요한 력점으로 삼고 외자 유치와 활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한(영성) 산업단지 / 영성경제기술개발구

중국 관영 최신 수지에 따르면 올 1월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 4,588개를 새로 설립해 지난해 지속적으로 성장한 배경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74.4%나 증가한 상승폭을 보였다. 비록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전세계 대외투자가 부진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의 뜨거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1,127억 1,000만원으로 규모에 파동이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기수(基数) 등 영향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 20.4% 증가해 중국에 대한 외자의 투자욕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었다. 더 깊이 분석하면 단기적인 투자유

치 수치의 변동은 경제법칙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레를 들어 일부 주요 프로젝트는 운영 주기가 길어 해당 년도 및 향후 몇년 동안의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로동집약형이고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기업은 상응한 전환도 하고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중국시장의 거대한 발전기회와 성장잠재력을 두고 다국적 기업들이 떠나기는 쉽지 않다. 투자유치 규모는 물론 투자유치 구조도 살펴봐야 한다. 올 1월 중국 첨단기술산업은 391억 6,000만원을 유치해 실제 외자사용액의 34.7%를 차지했다. 특히 첨단제조업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40.6% 증가해 지난해 접어들어 지속되어온 산업구조 최적화와

제조업의 성장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는 고품질 발전에 힘입어 외국인의 중국투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자 래원지를 보면 올 1월 서방 발달국의 대 중국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중 프랑스와 스웨리에는 각각 25배와 11배 증가하고 독일이 211.8%, 오스트랄리아가 186.1%, 싱가포르가 77.1% 증가했다. 이는 서방 언론의 이른바 '중국에서 외자 철수론'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외자기업들은 왜 '중국투자'를 늘일가? 영국 회풍그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해외 기업중 87%가 중국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 국제방송